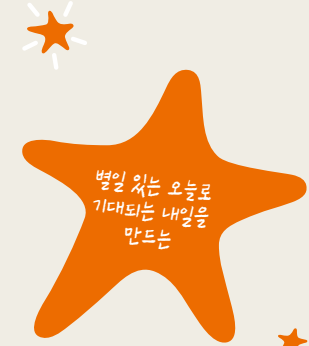


집에서 지역으로,
변화를
위한
발걸음

집에서 지역으로, 포로, 변화를 위한 발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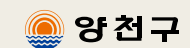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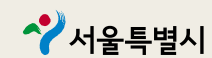
집에서 지역으로,
변화를
위한
발걸음



서울시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중고령발달장애인지원사업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9(신정6동 319-13)
02-2061-2500
ycsupport@hanmail.net



집에서 지역으로,
변화를
위한
발걸음



★ 서울시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중고령발달장애인지원사업



중고령발달장애인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단순히 ‘돌봄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나이가 들어도 익숙한 이웃과 함께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츠츠한 지역사회의 필요를 더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집은 그 목표를 향해 저희가 함께 걸어난 발자국이며,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발달장애인들의 삶이 멈추지 않고,
희망의 문을 열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습니다.

- 양천해누리복지관 -



중고령발달장애인지원사업은 **2025년 서울시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으로,
양천구에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중고령발달장애인이 일상을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낮 활동과 사람 관계를 잇는 사업입니다.



CONTENTS

PART 1
WHY

왜 중고령발달장애인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06

- 1) 중고령발달장애인이 늘어나고 있어요.
- 2) 나이가 들수록 활동과 관계가 줄어요.
- 3) 가족이 계속 돌봄할 수가 없어요.

PART 2
HOW

어떻게 중고령발달장애인사업이 운영되었나요? 08

- 1) 지역에 살고 있는 중고령발달장애인을 찾았어요.
- 2) 상담을 하고, 필요한 도움을 같이 의논했어요.
- 모니터링, 이웃동행단, 열린교실

PART 3
CHANGE

무엇이 변화였을까요? 13

- 1) 만남 / 만나서 살펴보고 헤아려요.
- 2) 연결 / 이웃과 관계 맺었어요.
- 3) 참여 / 함께 어울리고 참여해요.

PART 4
WITH

함께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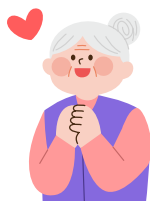
- 1) 이웃동행단 활동 이렇게 합니다.

PART 5
WHAT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26

왜 중고령발달장애인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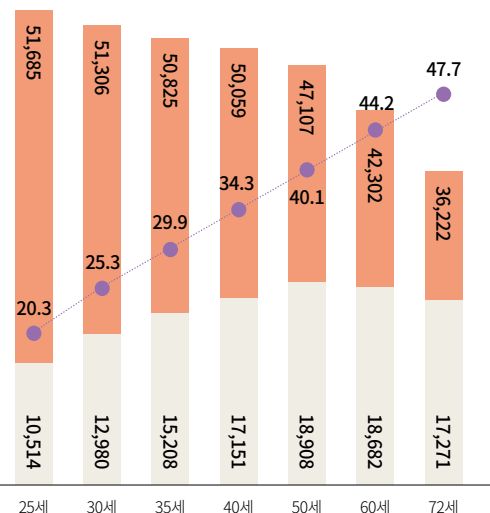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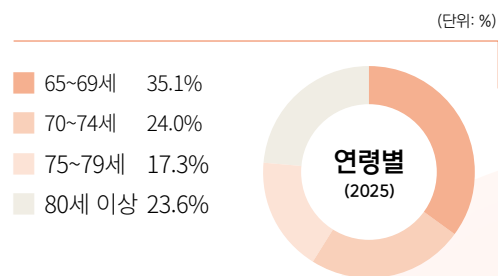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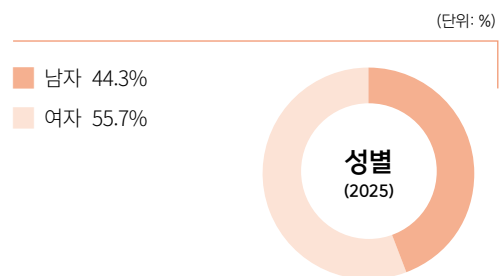
중고령발달장애인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는 걸 아시나요?

2023년 고령자 통계에서는 2년 후 초고령사회 진입을 예상했고, 실제 2025년 고령자 통계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051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 돌파하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이미 세계 1위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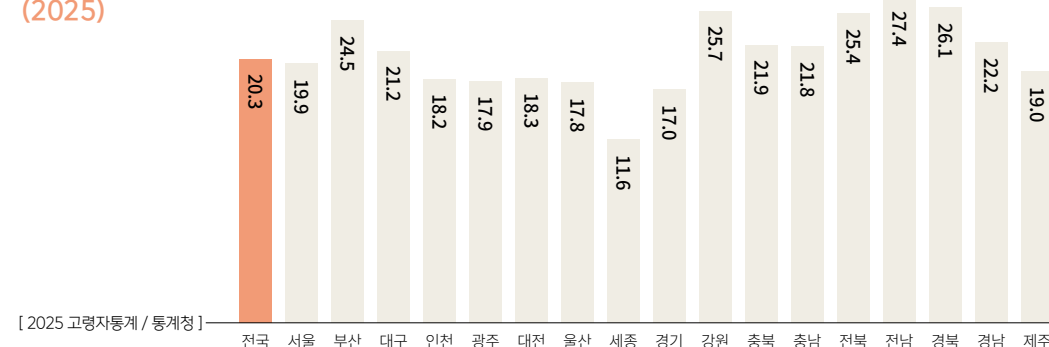
장애 인구의 고령화는 일반 인구에 비해 훨씬 급속한 속도로 2022년 기준 52.8%로 전체 인구의 고령화 수준보다 약 3배가량 빠릅니다.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도 고령화 시대의 변화를 피할 수 없으며, 이들의 수가 급증하는 것은 새로운 복지사업을 고민하게 했습니다.

서울시 등록 발달장애인 중 만 40세 이상 중고령자의 비중은 2020년 27.1%, 2023년 29%로 꾸준히 증가하며, 이들이 40대, 50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양천구 발달장애인이 총 1,593명으로, 이 중 만 40세 이상 발달장애인은 404명으로 발달장애인의 2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고령인구 비중 (2025)



나이가 들수록 활동과 관계가 줄어요.

중고령 발달장애인은 나이가 들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몸이 아파도 잘 표현하지 못해 적절하게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기존에 다니던 낮 활동(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 외부 관계가 끊어지고 고립될 위험이 커집니다. 이는 우울감이나 행동 문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역시 만 40세 이상이 되면 이용 기회가 서서히 사라집니다.



가족이 계속 돌봄 할 수가 없어요.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부모님들은 대부분 70대 이상의 노인입니다. 인지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 대부분에 도움이 필요한 발달장애인들에게 주 보호자인 부모님의 건강 악화는 돌봄 공백이라는 위기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양천구에서는 지역에 살고 있는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찾고,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위해 낮 활동 및 이웃 관계 지원을 단계적으로 실시 하는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중고령발달장애인이 사업이 운영되었나요?

1/ 지역에 살고 있는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찾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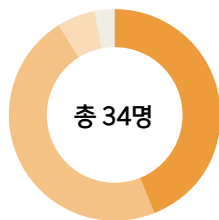


동주민센터, 파출소, 지역 상가 등을 방문하여 중고령발달장애인지원사업을 홍보 하고 도움이 필요한 중고령 발달장애인분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홍보를 통해 복지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용하는 서비스가 없이 가정에서 지내는 고립 장애인을 지원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홍보를 통해 총 34명의 중고령발달장애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 동주민센터 의뢰 15명
- 복지관 나들이 및 사업 신청 16명
- 자발적 신청 2명
- 주변 이웃 의뢰 1명



2/ 상담을 하고, 필요한 도움을 같이 의논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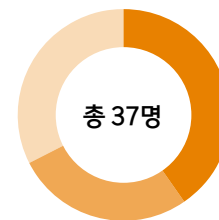


중고령 발달장애인 가정을 방문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의논하였습니다.

각 가정에 상황을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지원을 고민하였고,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람들과 교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37명의 중고령발달장애인을 정기적으로 만났어요



- 모니터링 15명
- 이웃동행단 10명
- 열린교실 12명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여러 가지 이유로 밖에 나올 수 없지만 가정을 살피며 안부를 묻는 일상의 만남이 필요한 가정을 집으로 방문하여 만나는 활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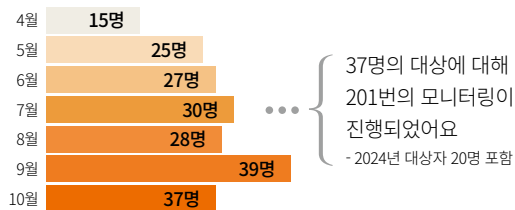
- ①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돌봄의 역할을 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이었고요.
- ② 노화로, 질환으로 외부 활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었고요.
- ③ 주 돌봄자인 보호자가 대상자의 외부 활동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 ④ 연계된 돌봄 자원이 없어서 당장 이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이었습니다.



가정으로 방문하면서 일상의 안부를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전하기도 하고, 관계를 쌓기 위해 노력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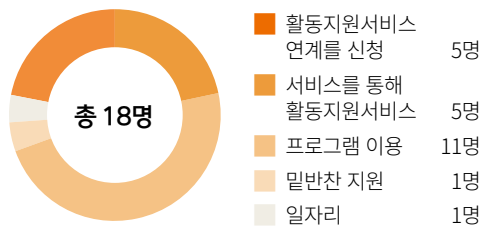
[2025년 10월 말 기준]

모니터링을 통해 총 37명의
중고령발달장애인을 만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상담을 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했어요



이웃동행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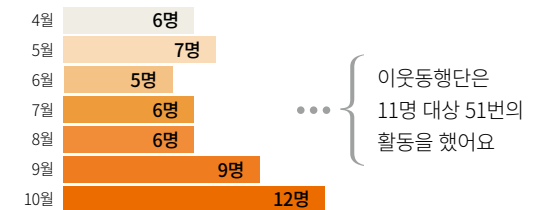
이웃동행단은 발달장애인과 일대일로 만나 소소한 일상을 함께하며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복지관은 중고령발달장애인과 이웃동행단이 만나 서로 어떤 활동을 할지 의논하고 이야기 나누도록 했습니다.

- ①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발달장애인도 괜찮습니다. 이웃동행단이 집으로~
- ② 가족과 분리가 어려운 발달장애인도 괜찮습니다. 함께 만나면 되죠~
- ③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아주 간단한 활동부터 시작했습니다.
- ④ 이웃동행단 선생님 만나는 날을 모두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이웃동행단 활동을 통해
총 11명의 발달장애인이 짝을 만났습니다



열린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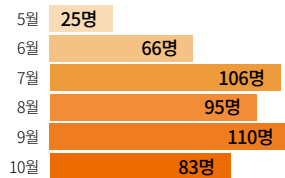
열린교실은 낮시간, 중고령발달장애인이 자유롭게 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일주일에 3번 운영되었습니다.

복지관은 혼자서 자유시간을 즐기기 어려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체육활동), 취미 여가(원예), 지역사회 활동(카페이용, 대중교통 이용)을 함께 하였으며, 서로 이야기 나누고 사람들과 함께 관계하도록 도왔습니다.

- ① 열린교실을 이용하면서 발달장애인들은 갈 곳이 생겼고요.
- ② 함께 하는 사람들과 지켜야 하는 규칙도 배웠고요.
- ③ 사람들을 만나면 그 기쁨이 배가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2025년 10월 말 기준]

열린교실을 총 20명의 발달장애인이 이용했고, 활동의 즐거움을 알게되었습니다



열린교실에는 20명의 대상이 489번 다녀갔어요



무엇이 변하였을까요?



1/ 만남 /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어요.

STORY 1

닫혀있던 마음이 열렸어요.

김태윤님

김태윤님은 중증의 지적장애가 있고, 고령의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서 여행도 다니고 pc방도 가고 자유롭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부터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혼자 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항상 곁을 지키던 어머니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거동이 힘들어지면서 두 분은 매주 벨트로 서로의 몸을 고정한 채 버스를 타고 신장 투석을 받으러 병원으로 향합니다.

처음 김태윤님 가정을 만났을 때, 돌봄이 필요한 두 분이 서로에게 기대어 지내는 모습에 위태로워 보였지만

슬작히 선생님이 오시는 것도 불행하네요

어머님의 말씀을 듣고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무언가를 연결하기보다 **천천히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자주 찾아가 안부를 묻고 필요한 건 없는지 살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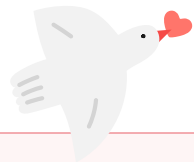
“어머님 오늘 가정방문 드려도 되나요?”, “오늘 병원은 잘 다녀오셨어요?”, “명절은 잘 보내셨어요?” 어머니의 마음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원래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안 보여줬어요?”, “직접 만든 콩물인데 이거 한번 먹어봐요”

그렇게 1년 남짓 이제야 드디어 찾아오는 것이 좋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나갈 일 있으면 들려도 되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사람도 없는데 오시면 좋죠

요양보호사든, 활동지원사든 연결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미실 수 있으시겠지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며 또 만나러 갑니다.



STORY 2

도움이 필요한 순간, 연결이 시작됩니다.

최경민님

최경민님은 중증의 발달장애로 고령의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최경민님은 살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의사소통도 어렵고, 어머니가 차려 준 밥을 먹고 외부 활동 없이 그냥 가정에서 지냅니다.

옷을 잘 입지 않아 집에만 있던 것이 이제는 외부 활동의 벽이 되었습니다.

척추도 굽고, 다리에 힘이 없어 제대로 서지도 못하지만 억지로 옷을 입히려 하면 거부반응을 보여 병원에도 갈 수 없습니다.

어머님도 나이가 들어 거동도 불편해지고 치매로 기억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최경민

어머님도 나이가 들어 거동도 불편해지고 치매로 기억도 가물가물해졌습니다.

바뀌어야 한다고, 당장 바꿀 수 있다고 자신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싫다”고 하면서도 담당자가 방문할 때마다 문을 열어주는 어머니 마음이 마치 계속 찾아와 달라는 신호인 것 같아 찾아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려 노력합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문을 두드렸지만, 평소와 달리 인기척이 없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근에 사는 아드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평소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져 문을 열기도 어려워졌다 합니다.

기관에서는 즉시 동주민센터와 상황을 공유하고 돌봄 SOS를 통한 긴급 지원을 연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상 돌봄을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옷 입는 것도 어려운 경민님은 남동생과 겨우 설득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활동지원사 연결을 위해서 장애 재진단이 필요하다 하니 천천히 검사부터 시도합니다.

그리고 가정에는 누가 찾아와도 문을 열 수 있도록 리모컨 도어락을 설치해 드렸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어머니의 거절을 거절로 듣지 않고 찾아가 노력 없이 있다면 가정의 어려움과 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가 어쩌면 “도와줘요”일지 모르겠습니다.

천천히 최경민님 가정을 만나며, 잘 돕겠습니다.

STORY 3

지역 속으로 한 걸음~

윤성우님

윤성우님은 중증의 지적장애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어 어” 정도입니다. 걸을 수 있지만, 거동이 불편하고 자주 넘어지곤 합니다.

어머니가 차려 준 밥을 먹고, 티비를 보고, 가끔 배달 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루의 전부입니다.

윤성우

집에서도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밖에 나가서 어찌 할 수 있겠어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열린교실에 나오기를 권유할 때마다 어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어머니의 거절에 자녀 양육에 대한 피로감, 자녀에 대한 걱정이 있음을 알기에 차마 급하게 재촉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집으로 윤성우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담당자가 방문할 때마다 방으로 데려가 장난감을 보여주고, 책을 자랑하고~~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 분입니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을 참 좋아하는 분입니다.

항상 함께 지내다 보면 잘하는 점을 놓치지 쉽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는 **성우님의 장점을 칭찬**합니다.

“성우님은 웃음이 참 많아요”, “심부름도 잘하시네요” 그러면서 채워도 채워도 부족하기만 하던

어머님에게 겨우 성우님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성우는 심부름은 잘해요. 봐요 지갑도 가지고 오지요?”

담당자와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어머니도 이전과 다른 윤성우님을 느낀 듯합니다.

어느 날,



담당자

한 번만 나와보시고 결정하시면 안돼요?

늘 방문 때마다 하던 제안인데,

윤성우

싫으면 안가면 되니까.. 일단 한번 나가 볼게요

오늘은 어머니가 다르게 반응합니다.

처음 복지관에 방문하던 날, “혹시 힘들어하면 어쩌나?” 엄청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윤성우

성우가 가자고 습니까 가야지요. 나가보니 밥도 맛있고 집에만 있는 것보다 좋네요. 저도 가고 싶어요

어쩌면 어머니는 나와도 괜찮다는 말을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역으로 나오는 그 첫 걸음이, 연결로 이어졌습니다.

2/ 연결 / 이웃과 관계 맺었어요.

STORY 1

이웃과 함께 걷기 시작하다.

한도윤님

한도윤님은 치매를 가진 고령의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가족 외에 다른 사람과 어울려 본 적도 없고, 복지관을 이용한 적도 없습니다.

한도윤님의 일상은 어머니와 집, 그리고 집 주변을 둘러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좋아하는 것도,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다고 하지만, 어머니와 산책은 빼놓지 않는 효자입니다.

담당자가 찾아갈 때마다 한도윤님은 거절합니다.

한도윤

어머님을 돌봐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다리가 아프아서 안돼요

어머니가 세상의 전부였을 한도윤님 마음이 동의 됩니다. 그래서 한도윤님이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으로 이웃동행단 선생님이 찾아가는 방법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만남은 쉽지 않았습니. 계속 시간이 없고, 다리가 아프다는 도윤님을 겨우 설득했습니다.

처음 활동은 식당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도윤님은 평소 집에서만 밥을 먹어서 몇 달만에 식당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식당도 어색하고, 이웃동행단도 어색한 한도윤님의 몸은 계속 문 쪽을 향하고, 시선도 허공을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웃동행단 선생님의 조심스러운 인사와 따뜻한 질문이 이어지자 한도윤님 표정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있을 때는 밖에서 먹었는데..”
그동안 이야기하지 않았던 본인의 이야기도 조금씩 꺼내 놓으십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 힘들게 나왔던 한도윤님의 생각이 궁금해 조심스레 확인합니다.

한도윤

좋았어요

“오늘 활동 어떠셨어요?”

다음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물어보는 질문에 기다렸던 말이 돌아왔습니다.

한도윤

시간 낼 수 있어요

참 이상합니다. 그날 한 활동이라고는 인사와 짧은 대화가 전부입니다.

이제는 매주 이웃동행단 선생님이 가정으로 방문합니다. 효자 한도윤님이 밖으로 나오지 않아도, 집으로 찾는 이웃동행단 선생님과 천천히 일상의 다른 기쁨을 찾아갑니다.

“들어오세요” 문도 열어주고, 환영하는 한도윤님입니다. 인근 식당에도 가서 같이 맛있는 밥 한끼를 나눕니다.

가끔은 주머니에 숨겨두었던 천원을 꺼내시며 감동을 주시기도 합니다.

언젠가 한도윤님이 어머니와 이별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천천히 다른 사람과 연결을 시작하고 있는 지금의 순간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STORY 2

하루에 즐거움이 생겼어요.

박서연님

처음 만났을 때,
박서연님은 몸이 아픈 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섭고, 엘리베이터 타기를 겁내 하던 서연님에게 몸이 아픈 언니는 어릴 적부터 세상의 전부였고,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서연님과 언니는 하루 종일 노래를 부르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서연님이 집에만 있는 상황이 안타깝고 걱정스럽지만, **아픈 언니를 돌볼 사람도 없고, 딱히 서연님을 바꾸기도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두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님의 유일한 친구였던 언니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은 세상의 전부를 잃은, 박서연님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언니의 빈자리를 대신해 줄 이웃동행단을 연결하였습니다.

걱정했던 것과 달리 서연님은 이웃동행단 선생님과 잘 지냅니다. 이웃동행단 선생님이 오는 날은 미리 문을 열고, 선생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때까지 문 앞에서 손을 흔들어줍니다. 이웃동행단 선생님은 말합니다.

서연님의 모습에서 사람을 향한 그리움이 느껴진다고요~~~

이웃동행단 선생님과 서연님은 천천히 곁을 채워갑니다.

조용하던 집 안에 웃음소리가 퍼지고 식탁 위엔 함께 만든 따뜻한 음식이 놓이고, 서연님이 하는 색칠공부에는 예쁜 색들이 번져갑니다.

박서연

선생님이 오시는 날은 기분이 좋아요.
자주 오셨으면 좋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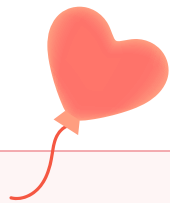


서연님의 말에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변화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부모님도 서연님을 보며 새로운 경험과 사람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연님이 언제쯤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이웃과 만남이 쌓이면서 아주 천천히 서연님이 스스로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 나오기를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기다립니다.



STORY 1

당연한 일상을 이제야 배웁니다.

강민정님

강민정님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치매로 일상생활이 어렵고, 우울감이 심한 오빠는 외출을 거부하고 집에만 있습니다.

민정님은 도움이 필요하지만,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도,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 민정님을 위해 작년부터 복지관이, 이웃동행단 선생님이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은 우울감이 심한 오빠를, 이웃동행단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번 민정님과 만납니다.

처음에는 이웃동행단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다른 사람과 만나 본 경험이 없었던 민정님은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이웃동행단 선생님과 약속을 해놓고도 전화를 받지 않고 기다리게 해서 꽤 애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웃동행단 선생님은 민정님의 상황을 이해했고, 기다려주었습니다. 만나면서 천천히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 밥 먹을 때 식당에서 지켜야 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가르쳤습니다. 집안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족들을 위해 해야 할 간단한 집 청소도, 요리도 알려주었습니다.

너무 당연할 것들도 배우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오십이 넘는 민정님은 이웃동행단 선생님을 통해 천천히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의 경험들을 하나하나 채워가고 있습니다.

민정님에게 이웃동행단 선생님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함께 연습해 주는 좋은 사람이 분명합니다.**



3/ 참여 / 함께 어울리고 참여했어요.

STORY 2

혼자서도 잘 갑니다.

오지민님

오지민님은 지체장애가 있는 어머니, 그리고 호흡기 장애로 장시간 외부 활동이 어려운 형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마저도 이용이 어려워졌습니다.

지민님의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 늦은 오전에 일어나 밥을 먹고, TV를 보고, 다시 잠시 눕는 일상.

혼자서 외출해 본 경험도 없었기에 유일한 외출은 형이 함께할 때입니다. 하지만 호흡기 장애가 있는 형에게 외출은 매년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지민: 지민이는 낮을 많이 가리고 외출하면 자꾸 돌아다녀서 안 돼요

지민님에 대한 형의 걱정과 보호의 마음도 저희가 넘어야 할 벽이었습니다.

거절을 각오하고 조심스레 담당자가 지역에서 하는 모임에 형과 지민님을 초대했습니다.

오지민: 자신은 없지만, 한번 가 볼게요

담당자의 끈질김 때문이었을까요? 첫 모임에서 형은 지민님이 염려했던 것보다 너무 즐거워 보여 마음을 놓았다 합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어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다 합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민님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열린교실에 이용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형과 함께 왔지만, 이제는 지민님 혼자서 복지관에 옵니다.

오지민: 이제 혼자 갈 수 있어요

열린교실에 참여하고 지민님의 일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9시면 눈을 뜨고 일찍부터 일어나 스스로 옷을 챙겨입습니다.

형이 걱정하는 낮가리고 외부 활동을 싫어하는 지민님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열린교실에 참여하고 지민님 가정에도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지민님이 열린교실에 참여하는 동안 형님은 조금 더 편히 쉬고, 가정을 돌봅니다.

갈 곳이 있어 즐거운 일상, 그것이 열린교실이 시작된 이유입니다.

STORY 1

관계 속에서 생각이 자랐어요.

장민호님

장민호님은 할 수 있는 것도 아는 것도 많은 분입니다.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단지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이 지켜지지 않거나 본인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나면 금세 예민해져서 사람들과 갈등이 생기곤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여러 번 옮겼고, 복지관도 그만두었습니다. 결국 혼자서 할 수 있는 전단지 아르바이트만 남았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지만, 어머니는 그런 장민호님을 늘 걱정합니다. 어머니와 의논하여 민호님이 좋아하는 자전거 모임을 계기로 복지관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걱정과는 다르게 민호님은 복지관이 좋으셨던 모양입니다. 자전거 모임을 계기로 복지관 열린교실까지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처음에 열린교실의 인원이 많지 않은 동안에는 잘 지내셨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많아지면서 조금씩 어머니가 걱정했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가방을 실수로 가져가거나, 그룹원들끼리 웃는 모습을 보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요”, “복지관 안 나오고 싶어요”,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가서 울었어요” 작은 문제에도 크게 반응합니다.

그동안 사람과의 관계 경험이 부족했던 민호님은

상황을 이해하고 조절하는데 서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호님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설명합니다. 대신 혼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감정을 공감 해주고, 해결 방법을 전달합니다.

그런 노력들이 쌓여 민호님에게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열린교실 이용자와 친해지면서 예전 같으면 금방 예민해질 상황에서도



장민호
그걸 수도 있지.
이상바람처럼야습어요

그 변화는 가정에서도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람을 노려보거나 때려보는 일이 많았는데, 이제는 먼저 가서 인사도 하고 챙겨주기도 해요. 그게 참 신기해요”

혼자가 익숙했던 민호님은 관계가 생기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열린교실에는 사람과의 관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함께합니다. 서로 서툴다 보니 가끔은 작은 갈등이나 오해도 생깁니다. 하지만 그만큼 기분 좋은 일도 생기고 생각이 자라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기분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열린교실은 별일 있는 일상을 만들며, 서로 어울리고 살아가는 방법을 연습하는 공간입니다.

STORY 2

지역에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류지안님

류지안님은 과거 결혼생활을 했지만 오래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취업도 몇 번 시도했지만, 그 역시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운영하던 의상실에서 일을 도우며 지내다가 의상실이 문을 닫은 뒤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류지안님은 삼촌의 도움으로 어머니와 함께 복지관을 찾았습니다.

류지안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거든요.
사는데 바빠서 미처 알아받지 못했었어요

짧지만 솔직한 답이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동안 일만 하느라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지 잘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류지안
힘주 좋을 너무 심심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복지관 상담 후 류지안님은 바로 열린교실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열린교실을 이용해보니 집이 아닌 지역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매번 엄마가 해줘서 못했어요. 못하니까 하지 말라고 해요”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했던 일들이 여기서는 할 수 있는 일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어머니가 없으면 외출도 하지 않았지만 열린교실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제는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용기가 생깁니다.

이제 즐거움을 알게되고 용기가 생기니 하고 싶은 일 투성이입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홍보지가 올라가면 제일 먼저 확인합니다.

류지안
이거 저도 할 수 있어요?
신청서만 쓰세요

지안님에게 열린교실은 세상과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이제 지안님은 복지관 나들이도 신청하고 필라테스, 레진아트... 참여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먼저 찾아 활동합니다.

열린교실은 지안님에게 다시 세상과 연결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관계를 배우고, 다음으로 도약할 힘을 얻고 키워가고 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요.

#

처음의 낯섦,
그리고 첫걸음



#

이웃동행단
누군가의 하루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



#

함께하는 하루
작은 기적이 만들어지는 순간



선생님들의 첫 번째 활동은 매칭된 발달장애인을 만나는 일입니다. 처음은 누구에게나 낯섭니다. “내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지?”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처음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어색한 미소와 짧은 인사로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웃동행단 활동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활동은 아주 소박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동네를 산책하고, 장을 보기도 하고, 간단한 음식도 함께 만들어 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순간들이 매일 똑같았던 하루를 다르게 합니다. 혼자가 당연했던 시간들이 누군가와 함께 만들어 가는 시간이 됩니다.

1/ 이웃동행단 활동 이렇게 합니다.

이웃동행단은 복지관으로 나오기 어려운 분들, 사람을 만나는 일이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먼저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웃동행단 활동을 하다 보면 계획하지 않았던 변화들이 조금씩 생깁니다. “만날 때마다 주머니에서 야쿠르트를 가지고 와서 나눠주는데 감동이었어요”, “잘 웃지 않으시는데 낙엽으로 머리에 던져드리니까 아이처럼 웃으셨어요”, “처음에는 맨날 늦으셨는데 이제는 잘 나오세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변화가 생겨나고 그 변화는 삶 가까이 있는 이웃동행단에게 전해집니다. 단호하게 거부하던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옆에 사람이 있으니 좋아하네요. 애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다 할게요. 알려주세요” 그 작은 변화가 삶의 또 다른 변화로 이어져 일상의 든든함이 더해집니다.

#

그리고 선생님들이 배운 것



처음 활동을 시작할 때 선생님들은 “도와줘야 할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했습니다. 필요를 살피고 어려움을 돕고 무언가를 해드리는 일이 이웃동행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은 낯설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만남이 쌓여갈수록 그 생각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관계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쌓여가는 거구나를 느끼셨습니다.

“지나가다가 바지를 봤는데 00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요리, 체육활동도 같이 해보려고요” 이제는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마음속에서 같이 만나는 참여자들이 돌봄의 대상이 아닌 이웃으로 자리합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걸어주는 사람입니다.

#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웃동행단도 활동지원사랑 같은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이웃동행단이 만나는 분들은 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공적인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분들입니다. 누군가는 외부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누군가는 문밖을 나서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계약이나 시간표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인사 한마디, 상대를 배려하는 따뜻함 속에서 시작됩니다.

“활동비를 드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웃동행단 선생님들은 말합니다. “활동비를 받게 되면 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요” 이웃동행단 선생님들은 시간이 남아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여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은 돈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며 조금씩 쌓여가는 관계입니다. 이웃동행단은 서비스가 아닌 동행이고, 일이 아닌 관계이며, 계약이 아닌 진심으로 이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가 더 멀리, 더 따뜻하게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

지역주민으로 만납니다



카페모빈 사장님은 열린교실 참여자들을 위해 (커피, 베이킹, 요리 등) 수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낯설지만, 나이가 많은 중고령발달장애인이라고 하니 더 막막하네요”

수업을 시작하기 전 사장님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민도 잠시, “너무 열심히 하시던데요. 수업을 더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너무 다르다고 겁 먹었나봐요”라고 이야기 합니다.

‘중고령발달장애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먼저 걱정부터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발달장애인도 낯선데 나이까지 많다면 더 어렵고 다가가기 힘든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 활동을 함께한 지역주민들은 “막상 만나니 너무 열심히 하세요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고령발달장애인이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01

관계 중심의 '찾아가는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중고령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은 나이가 들면서 복지관이나 행정기관을 직접 찾아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던 시기를 살아오신 고령의 보호자들은 아직도 자녀의 장애를 부끄럽게 여기며, 숨기고 싶어 합니다. 또한 장애가 있는 자녀의 돌봄을 오로지 가족의 몫으로 생각하며 복지 제도나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먼저 찾아가서 만나고, 중고령발달장애인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관계 중심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02

일상과 여가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어르신을 위한 서비스는 많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중고령 발달장애인들은 생활이 단순하고 사회적 관계가 부족합니다.

중고령발달장애인들이 낮시간을 보내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안전하고 편한 공간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히 복지관 중심이 아닌 그들이 살고 있는 생활권을 기반으로 다양하게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03

지역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중고령발달장애인 사업을 통해 만난 많은 중고령발달장애인들은 스스로 복지관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동주민센터, 통장님, 주변 이웃을 통해 발견되었습니다.

고령의 부모님은 복잡한 제도를 일일이 찾기 어렵고, 발달장애인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지역에서 관심을 가지고, 고립 위험이 높은 중고령 발달장애인을 찾아야 합니다.



04

통합적으로 아우르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고령발달장애인은 노화와 돌봄의 문제가 함께 시작되는 시기로, 부모 고령화와 함께 돌봄 공백, 주거 불안, 건강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사회적 고립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 돌봄자인 부모 세대 역시 체력, 인지 저하, 경제적 부담을 겪으며 자녀 돌봄에 대한 불안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중고령발달장애인과 부모를 함께 바라보며 전반적인 삶의 문제를 고민하는 통합적인 서비스 지원체계가 고민되어야 합니다.



양천해누리복지관은

이 사업을 하면서 중고령 발달장애인의 삶이 단순히 돌봄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일상·지역의 문제가 함께 얽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복지관은 지역이 함께 돌보고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기 위해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나아가겠습니다.

